

# 생활 속 건강정보

## 마약류의 최신 경향(2)

저자 **최혁재**  
경희의료원 예제팀장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 개요

최근 국내에서 신종 마약류의 유입과 남용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부작용도 동반하여 상승하고 있다. 마약이 절도나 성범죄에 연관되기도 하고, 환각파티에 동반되기도 하며, 청소년층에게도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종 마약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그 경로로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유통이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심지어 신종 마약을 직접 제조하는 선까지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타국의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등을 강화하여 사회 안전을 지키는 일이 필수적이다.

### 키워드

범죄에 악용, 환각파티, 불법유통, 해외 직구구매, 직접 제조,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 (2) 국내 마약의 남용 실태

### ① 범죄에 악용되는 마약

국내에서 사용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종 마약들은 심심치 않게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더블K’라고 알려진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을 이용한 범죄도 많은데, 졸레틸을 여성에게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다던지, 심지어 70대 할머니에게 졸레틸을 탄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모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는 안면마비증세로 입원해있던 환자의 수액에 케타민을 투여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2년과 함께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건도 있었다. 얼마 전에는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여성에게 마시게 한 뒤, 무려 12시간 동안 수차례나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도 있었다. 이 남성은 여성을 애인대행 사이트에서 알게 된 뒤, 대포폰을 사용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치밀한 범죄를 계획했고, 여성이 성폭행에 대해서 신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마약을 한 지도 모르게 했을 정도였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여성이 환각 증세를 보이는 것을 알고야 수사를 확대했을 정도이다.

### ② 환각파티에 사용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받았던 문화적 충격중의 하나가 마약이 곁들여진 클럽 파티였을 것이다. 그래서 IMF로 나라살림이 어려워졌을 때, 유학생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유학시절에 만났던 엑스터시, 마리화나 등을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갑자기 증가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신종 마약이 곁들여진 환각파티가 확산되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14년에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10여명이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집단 투약하면서 게이클럽을 거쳐 가정집에서까지 마약파티를 벌이다 입건된 적이 있다. 2015년에는 이렇게 특정한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의사, 교사

등의 전문직이 포함된 환각파티가 적발되기까지 이르렀다. 국내 판매책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고 환각파티까지 이어진 것인데, 마약을 구입한 계층은 그 외에도 골프강사, 향해사, 대학생, 회사원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신종 마약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클럽마약 내지 파티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대들끼리의 소규모 환각파티도 쉽게 적발되고 있다. 여기에서 앞서 얘기했던 한인사회에서 유행한다는 신종 마약인 러시가 발견되었던 것이다.

③ 청소년층을 노리는 신종 마약

최근 미국에서 엑스터시, 대마초, 필로폰 등을 몰래 들여와서 10대들에게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된 적이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을 믹서기로 잘게 빻은 다음 건강식품 캡슐에 분포해서 밀수입한 이들의 범행수법은 청소년을 대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쳤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로 여성들,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살 빼는 약이라고 속여 신종 마약을 판매한 것이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들이 행각은 그녀들과의 성매매로까지 이어졌다. 환각 증상을 수상하게 여긴 부모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이들의 범죄 행각은 다른 청소년들에게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이 외에도 식약처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파라메톡시메스암페타민(PMMA)과 메톡세타민 등 15개의 새로운 환각물질들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과 젊은 층에 구별 없이 확산되어가고 있다는 경고들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이들은 다른 신종 마약의 특성들처럼 환각 및 중독유발 효과가 기존 마약에 비해 훨씬 강력하고 위험한 물질들이다.

(3) 신종마약의 불법유통 실태

① 신종 마약의 유입 확대 추세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여 종의 신종마약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청소년 및 젊은이들에게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에만 15종의 물질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될 정도이다. 국내 마약유통 경로는 주로 인편을 통하거나 국제특급우편이나 특송 화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특급 우편이나 특송화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로 개인소비목적의 경우가 많으며, 2012년에는 전년 대비 140%나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물론 적발된 경우만 집계한 것이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최근 특송화물 이용 반입 마약 적발 건수(출처 : 관세청)

2014년 총 308건의 마약류 밀수가 단속되었는데, 이 중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여행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특송화물, 배를 이용한 해상여행자, 국제특급우편의 순이었다. 이렇게 국내 마약 밀수 경로로 항공

편을 이용한 여행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인종적인 특성과 관련이 높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코카인을 소비하는 미국의 경우, 코카인을 생산하는 남미의 나라들이 같은 대륙에 있고, 주로 배를 이용한 밀수가 많은 편인데, 밀항만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워낙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밀수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항구에는 외국인이 운항하는 마약 밀수선이 수시로 도착한다면, 금방 구별될 것이다. 물론 남미의 마약 카르텔이 우리나라의 세관직원들을 매수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 다행한 이유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경로든지 간에 인편으로 소량씩만 유입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입되는 양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2. 밀수경로별 마약 적발 현황(출처 :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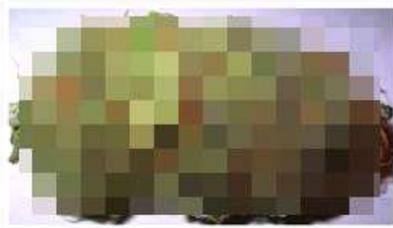
②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통의 확대

마리화나 (대마초) 해시시 오일 ( [ ] ) AAA+ 등급의 딸 전문 판매 ( [ ] )-2

마리화나 (대마초) 해시시/해시오일 ( [ ] ) AAA+ 등급의 딸 전문 판매 [ ] 입니다.

저희는 오랜기간의 노하우와 좋은 품질로 승부를 하고자 딸 전문으로만 취급합니다.

다른 마약은 일절 취급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서 술, 담배보다 안전한 딸만 판매합니다.



딸 (마리화나) (그램 5170)



딸 (마리화나) (그램 150)

그림 3. 마리화나 불법 판매 사이트(출처 : 세계일보)

각종 불법 의약품과 전통적인 불법 마약류뿐만 아니라 각종의 신종 마약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활발하게 팔리고 있다. 기존의 인터넷을 통한 판매방식이 독립적인 IP 주소를 가진 사이트를 이용해서만 가능했

다면, 현재는 비공개 블로그, 카페, SNS 및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법적인 차단 없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호황이 되고 있다. 특히 다른 물품에서도 최근 애용되기 시작한 해외직구 열풍이 신종 마약의 유통경로 확대에도 일조하고 있다. 2013년 해외직구를 통한 밀반입이 20억 원에 불과했는데, 2014년에는 상반기에만 486억 원으로 수직상승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게다가 1~2년 전만 하더라도 직접적인 검색어로는 사이트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이트 창에 직접 IP 주소를 입력하여 서버를 우회해서 접속하는 것만 가능했는데, 요즘은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실제로 러시, 램(RAM), 블루 보이(Blue Boy), 정글 주스(Jungle Juice) 등의 검색어로 제품 구입처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신종 마약 판매 단속의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상한 사이트로 분류되어 수사 대상에 올라갈 때면 벌써 사이트가 사라지고 새로운 사이트를 열어 다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검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유통의 단속을 더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결제수단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마약 판매 사이트에서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존의 통화인 무기명입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는 거래의 로그기록이 남지만, 비트코인은 데이터로 이뤄진 가상화폐로서 거래의 흔적이 남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구매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③ 신종 마약의 국내 직접 제조와 유통 출현

그동안 신종마약은 주로 미국이나 헝가리 등 주요 적출국에서 수입하는 형태로 밀반입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썩 같은 허브 식물의 잎에 엑스터시 등의 신종 마약을 물에 녹여 뿌린 다음 건조시켜 만든 다음, 담배에 섞어 흡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물론 중독과 환각을 일으키는 효과는 일반 마약이나 다를 바 없이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는 텃밭이나 아파트 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해서 흡입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도심의 아파트에 전열기와 환풍 시설을 갖춰놓고 대마를 재배한 경우도 있었다. 충분한 일조량과 고온을 확보하기 위한 전열기로 열을 쬐어 주면서, 특유의 대마향이 밖으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강력한 정화조 냄새 제거용 환풍시설을 갖춰놓고 대마를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림 4. 아파트 안에서의 대마 직접 재배(출처 : 한겨레 신문)

④ 국내 거주 외국인의 신종 마약 사용 증가

신종마약의 유입 경로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국내에서 태국산

신종마약 ‘야바’를 판매하고 투약한 태국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야바는 필로폰 등의 기존 마약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복용이 알약처럼 간편해서 밀매가 많이 되고 있는 약물이다. 이들은 국내 거주 자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신종마약을 공급하는 새로운 경로가 되고 있다.

### 3. 결어

앞서 미국의 고민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다루었다. 마약에 대해서 단속하고 예방하는 시기를 놓치면서 이제는 공적 권력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지만, 그 또한 별무소용인 것이다. 다행히 아직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국제적 마약조직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단속체계를 이용하여 마약유통 과정을 세탁하는 장소로 이용하려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IT 강국이고, 트렌드에 강한 국민성향을 감안할 때, 언제든지 마약의 확산속도는 가속이 붙을 조짐이 총만하기만 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처방전 1매당 가장 많은 약을 먹는 나라가 아닌가? 마약은 언제나 중독의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법이다. 따라서 전 교육기관에서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단순히 약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먹는 것이 정확하다에서 그치는 사용설명이 아니라 약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약사들이 약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보다 확실한 개념을 심어줘야 하고, 불확실한 약물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경각심 또한 어린 나이부터 불어넣어줘야 한다. 미국이 마리화나의 유해성에 대한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다가 벌어진 최근의 사건들이나, 영국의 마약계몽 프로그램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라지면서 찾아온 결과만 봐도 그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외국 장기 체류자, 유학생을 비롯한 해외 교포들에게 이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불법약물 남용의 해악에 대해서 외교적인 차원에서라도 선제적 계몽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술했듯이, 우리나라에 아직 마약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시기에 있을 때, 꼭 이뤄야 하는 선결 과제인 것이다.

**약사 Point**

1. 국내에서도 최근 신종 마약류를 중심으로 한 범죄와 사회적 문란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청소년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계도에 앞장서야 한다.
2. 약사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에 약의 전문가로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 참고문헌 ■

- 1) 데일리팜,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146451&keyWord=%BD%C5%C1%BE%B8%B6%BE%E0>
- 2)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761>
- 3)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view/375408/?sc=naver>
- 4) 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754595>
- 5)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0913>
- 6) YTN 뉴스, [http://www.ytn.co.kr/\\_ln/0103\\_201407171102223589](http://www.ytn.co.kr/_ln/0103_201407171102223589)
- 7)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528010013064>
- 8) 메디코파마뉴스, <http://www.emedic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05>
- 9) 데이터뉴스,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0&aID=20121010135323810>
- 10)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2/05/20150205004674.html?OutUrl=naver>
- 11)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89375>
- 12)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4842>
- 13)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7391.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7391.html)
- 14)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437082&code=61121211&cp=nv>
- 15) 대검찰청 2014 마약류 범죄백서
- 16) 네이버 지식백과
- 17) 식약처 마약류 종합정보 홈페이지 e-book